

기고

광주·전남 통합, 절호의 기회다



김병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2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실천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이번 통합을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하며,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제정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이미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광역단위의 통합은 인력과 재원을 모아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특히 광주·전남은 산업구조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행정통합을 통해 권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발전의 기반을 세울 현실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변화다. 둘째, 통합의 성공은 '주민의 동의'에서 시작된다. 신정훈 위원장이 제시한 40일의 속의 과정은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공론화는 시간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내용의 문제다. 통합은 주민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바꾸는 결정이기에,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넘어서 주민투표 등 실질적 동의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이 '위로부터의 행정개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결단'으로 자리 잡는다. 셋째, 통합은 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실험이며, 새로운 자치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강조하는 '초광역 경제권'의 흐름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자치제정·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며, 통합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권한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 자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은 규모의 재편이 아니라, 권한의 재배분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 속을 더 세밀하게 민주화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통합은 이제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됐다. 광주·전남 통합은 새로운 형태의 자치정부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의 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속가능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함께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만이 진정한 분권의 출발점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동의의 무게다. 광주·전남이 제2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을 주민과 함께 내딛어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주민이 그 변화를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응애, 응애에” 선생이의 첫 울음은 세상을 향한 안녕이다. 엄마와 연결된 땀줄을 통해 산소도 영양분도 뱃속, 딱딱 시기와는 안녕. 땀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스스로 호흡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다. 배가 고프고 잠이 오고 목이 불편 할 때도 아기는 울음으로 소통을 한다. 울음소리의 높고 낮음, 반복된 리듬, 잔잔한, 혹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통해 마음을 전달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글은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시작한 글쓰기였지만 쉽지 않았다. 내 안의 감성과 잘 맞는다는 생각에 아동문학을 선택했지만,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유치원 선생님이거나,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나, 대화 속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어느 사이, 내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동심이 고개를 들며 나는 어느새 한 아이가 되어 소리쳐 말하며 깔깔 웃을 수 있었다. 조금씩 쓰기 시작하니 어느새 좋은 글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어떻게 하면 울음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아기처럼, 살바도르 달리의 흐물흐물 시계처럼, 내 안의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을지 생각이 많아졌다.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 급한 청탁이 들어 올 때면 마음이 답답하다. 편하게 써달라고 하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이 어디 있는가. 20세기 문화의 아이콘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에니스트 헤밍웨이도, “그해 여름도 다 지나갈 무렵

우리는 강과 들뜬 사이에서 두고 산들이 바라보는 어느 마을의 민가에 머물고 있었다.”로 시작되는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첫 부분을 적어도 50번은 고쳐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 사실주의 분야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반 투르게네프의 글쓰기는 또 어떤가. 섬세한 감정 묘사와 균형 잡힌 서술 방식,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당대 러시아 사회의 변화와 인간 내면의 갈등을 조화롭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글쓰기는, 세 내려간 원고를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고는 석 달에 한 번씩 꺼내보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다음에야 발표했다. 송나라 때의 고문운동(古文運動)의 영도자로서 명도(明道)의 정통 이론을 주장, 시에 있어서도 여리고 화려한 기풍을 떨치고 담아한 풍격의 시작을 한 구양수도 원고를 벽에 붙여 놓고는 방을 드나들 때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2026년, 새날이 또 시작됐다. ‘글을 잘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왔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는, 내 안에 감사가 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독자투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방학 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나긴 학기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겨울 방학을 맞이했다. 추운 날씨만큼 웅한 학교 주변 분위기가 방학임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것 같다. 방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을 잠시 잊고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학업 준비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PC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인터넷·SNS상에서의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중에서 하나가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불법 웹툰·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상 배너 등을 통해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에 가입 후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오락으로 보이고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 시간·장소도 가리지 않으며, 게임 진행 시간이 1분 내외로 오래 걸리지 않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보니 재미삼아 시작했던 오락이 점점 범죄라는 도박에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용돈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되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용돈을 받거나 동급생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금전 대역으로 이어진다. 결국 금품갈취 같은 학교폭력과 절도·중고나라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5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약 40%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는 약 15만7천여 명에 해당한다. 그 중 약 19.4%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도박을 계속했으며, 이는 약 3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도박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용돈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사

용처를 묻는 질문에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돈과 관련된 변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거나 습기는 등 스마트폰·온라인 사용 습관의 변화, 이유 없는 짜증 및 과도한 흥분과 무기력이 반복되는 등 정서와 행동의 변화, 집중력 저하, 잦은 지각이나 결석 등 학업과 일상의 변화 등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경찰·자치단체·학교·청소년단체 등 사회에서도 불법 사이트 단속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예방법지원원(1336)에서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가정과 사회가 힘을 모아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은 언젠간 근절될 것이라 기대를 해본다. <신세환·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한중 우호교류의 상징 판다 한 쌍 우치동물원을 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광주 우치동물원을 특정에 판다 한 쌍 대어를 깜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방중 동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우호 선린 관계에 있어 한국인들에게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류가 될 것이다. 광주 동물원에 판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했다”고 배경을 들었다. 광주시가 직영하는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청주에 이어 환경부 지정 두번째 국가거점으로 지정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거점 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 치료 등을 위해 지원금을 받는다. 광주시는 중국측으로부터 판다 대역가 확정되면 준비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합 검토하고 있다. 판다 월드가 조성되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는 판다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밀러랜드 놀이시설과 시너지 효과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가르고 있어 그 위상이 더 커진다. 이미 사육 능력은 충분히 입증됐다. 우치동물원은 호랑이·곰을 포함해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 89종 67마리가 생활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43종 98마리와 천연기념물 7종 6마리가 포함됐으며 전국에서도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다 역시 대나무를 먹고 나무를 터며 자연에서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시설을 준비하면 될 일이다. 국가 프로젝트다. 운영비 지원까지 국비 투입 가능성도 열려 있어 환영한다.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은 동물 복지·진료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호남권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충청권은 에버랜드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인프라와 전문성이 뛰어난 광주가 판다 추가 대역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양국간 실무 절차가 긍정적으로 진행돼 우치동물원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판다 열풍을 부를 산실로 부상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시 드러난 5·18 암매장 추정지 신속 조사해야

광주시가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의 공동묘지 구역을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로 판단하고 조사가 나선다. 이 일대는 2008-2009년에도 발굴이 이뤄졌으나 이번 대상지는 당시 지점과는 다르다. 개장 범위는 2천140.8㎡에 이른다. 현재는 130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공동묘지였던 곳으로, 당시 31사단 소속 군인들이 영내에 가매장했던 희생자들을 이후 옮겨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5·18 행방불명자는 진상규명의 핵심적 과제지만 여태껏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다. 2019년 출범한 정부 차원의 5·18조사위원회가 암매장 추정지 2곳을 조사해 9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일치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북구 각동동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드러난 유해 20구 역시 교차 검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5·18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4월 초까지 분묘 개장 공고를 진행한 뒤 본격화할 방침이며,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벌인다. 5·18기념재단은 민간인과 군

인의 증언이 서로 부합해 암매장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5·18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특정됐다. 광주시가 2000년 소재찾기 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해온 암매장 제보지 발굴과 감정 사업의 연장선이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진행됐으나 소식이 없었다. 5·18 조사위가 발포 명령자, 여성 성폭행, 북한군 개입설, 양민 학살,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실상 왜곡 등과 함께 주요 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언이 제기되고 정황상 가능하다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5명이다. 인정하지 않은 인원을 보태면 수백명에 이른다.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하하나 빠짐없이 밝혀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45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푸는 과업을 완수해야 하겠다. 정부 당국도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카시 광장

삶의 품격

김해숙

생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 뭍은 속내 날빛 품고. 고조곤히 익어가는. \*시작노트\* 미리내 마을 숨긴 청자빛 아래 찬바람 속 단풍이 의지하며 뭍은 속마음 달콤한 향으로 채워가는 모습 정겹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